

Date: 5 Iyar 5786 (April 22, 2026)

Torah Portion: Acharei Mot / Kedoshim

Topic: 삶 속 가운데, 그리고 죽음 가운데- 제 1 부

아하론의 아들들이 죽은 후 (레 16:1), 미드라시는 미리암의 죽음 (민 20:1)으로 시선을 돌려 왜 그녀의 죽음이 붉은 암송아지 재에 관한 법 (민 19 장) 바로 뒤에 배치되었는지 묻습니다. 현인들은 이 병치 구조가 “가치 동일성”의 심오함을 가르쳐준다고 답합니다. 즉, 붉은 암송아지의 재가 의례 법적으로 부정함으로부터 속죄하고 정결하게 하듯, 의인의 죽음 또한 속죄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교는 부정함이 단순히 의례 법적인 상태일 뿐만이 아니라 도덕적, 영적인 상태임을 시사하며, 붉은 암송아지의 재가 '투마(tum'ah, 부정)'를 제거하듯 의인의 별세는 공동체 내의 죄로 인한 부정됨을 씻어냅니다.

라쉬(Rashi)는 민수기 20 장 1 절 주석에서 모에드 카탄(Moed Katan) 28a 를 인용하며 이 가르침을 명시적으로 밝힙니다. 즉, 의인의 죽음은 코르반 (뜻. 가까이 나아감; 번역. 제물(offerings)이 그러하듯 속죄의기능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인들 스스로가 일종의 '코르반 (korban)', 즉 그들의 존재 자체와 궁극적으로 그들의 떠남이 타인들을 여호와 (YHWH)께로 가까이 이끄는 살아있는 제물이 됩니다. 그러나 이 속죄의 메커니즘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이고 심리적인 것입니다. '에셰드 하네할림(Eshed HaNechalim)'이 설명하듯, 사람들이 의로운 개인의 고난이나 죽음을 목격할 때 그들은 회개로 고무됩니다. 어떤 이들은 저토록 의로운 사람도 타격을 입는다면 자신들은 분명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반성하며, 다른 이들은 그 의인이 그 세대를 대신해 고난을 받은 것이라고 결론짓습니다. 어떤 경우 든 그 결과는 여호와 한분께로 나아가는 생각과 행위의 '테슈바 (teshuvah, 회개)'이며, 속죄를 불러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통회하는 각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의 접근은 또 다른 미드라시적 가르침에 의해 강화됩니다. 랍비 유단(R' Yudan)은 아하론의 죽음 (신 10:6)이 돌판이 깨진 사건 (신 10:1-5) 옆에 배치된 것을 주목하며, 아하론의 죽음이 '카도쉬 바루쿠' (거룩하신 분) 존전에서 돌판 자체가 산산조각 난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음을 가르칩니다. 돌판의 깨짐은 이스라엘과 창조주 사이의 언약의 단절을 의미했으며, 평화와 중재, 영적 지도력을 상징했던 아하론은 그 언약적 연결의 살아있는 말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적 상실이 아니라, 여호와 신성한 임재의 현존이 이 땅, 물리적 세상으로 흘러드는 통로에 균열이 생기는 범 우주적 빛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람반(Ramban)은 레위기 16 장의 속죄에 관한 논의에서 속죄가 단순히 의례 법적인 것이 아니며, 관계적인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이 이해를 심화시킵니다. 속죄는 '라존(ratzon, 신성한 은총)'을 회복하고 하늘과 땅 사이의 축복의 흐름을 다시 엮습니다. 의인들은 이 흐름을 유지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삶은 세상의 영적 균형을 지탱하며, 그들의 떠남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세계 영역 그 너머까지 울려 퍼지는 단절력을 자아 냅니다. 조하르 (Zohar III, 56b)는 이를 신비주의적 용어로 표현하며, 의인의 죽음이 그 세대를 향한 “심판을 달콤하게 (מִיתוּק הַדִּינִים; 미툽 하디님; mituk ha-dinim)”, 곧 누그러뜨르도록 만든다고 가르칩니다. 짜딕 (tzaddik, 의인)이 떠날 때, 그것은 샤마임 영적 세계의 자비심을 깨우게 하며, 여호와와 신성한 공의의 심판의 균형을 재조정하고 공홀로 저울을 향하게 하며 승리하게 해줍니다.

랍비 히야 바 아바(R' Chiya bar Abba)는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 봉헌식 기간인 아비브 월(첫째 달) 월삭에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죽음이 특별히 욘 키퍼르(Yom Kippur, 대속죄일) 의식(레위기 16 장)에서 언급된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여기서 좀 더 깊은 한 층 다른 세계에서 부으시는 통찰력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 이유는 욘 키퍼르(대 속죄 일)가 온 심장과 손발의 행위까지 완전한 회개가 미처 없었을 때에, 그 한 해 동안에 누적된 생각-말-행동의 죄를 속죄하듯이, 의인의 죽음 또한 죄를 속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이 날에 그가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레 16:30)라고 말씀하며, 이와 유사하게 사울과 요나단의 매장 후에 "그 후에야 엘로힘(Elohim)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삼하 21:14)고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미드라시는 욘 키퍼르, 대 속죄 일이 죄를 가져온다는 증거를 여전히 찾으려 하는데, 이는 자명해 보이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속죄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암시합니다. 욘 키퍼르가 테슈바, 회개와 고백, 내면의 상승하는 변화를 요구하듯, 의인의 죽음 또한 자동으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행적들을 뒤돌아오도록 깨우침으로써 속죄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알쉬흐(Alshich)가 제기한 질문을 불러옵니다. 과연 어떤 의인들이 이러한 속죄의 힘을 가졌는가? 그것은 가장 고결한 영혼들에게만 국한된 것인가, 아니면 더 넓게 적용되는가? 랍비 아바는 그 정결함이 붉은 암송아지에게 요구되는 수준에 필적하는 미리암과 같은 드문 개인들로 제한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관점에서 그들의 죽음은 개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세대의 짐을 대신 짚어진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랍비 히야는 이러한 제한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만약 완전히 죄 없는 자만이 속죄할 수 있다면, 왜 현자들은 거룩하신 분께서 의인의 죽음을 슬퍼하신다고 묘사했겠습니까? 결점 없는 삶의 완성은 오직 기쁨만을 가져다 줄 것이라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또 다른 미드라시는 의인의 이 땅에서부터 데려가심을 정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미를 꺾는 것에 비유하며 (아가 라바 6:6), 그것이 신성한 기쁨의 순간임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조하르(Zohar I, 122b)는 이러한 긴장 관계를 이중적 현실로 설명하며 해결합니다. 의인이 떠날 때 아래 세상에는 슬픔이 있지만, 그 영이 그 근원, 여호와께로 돌아 감에 따라 샴아임 (하늘)에서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인의 돌아가심은, 여러 세계의 층위에서 동시에 작동합니다. 그것은 이 땅, 물리적 세상을 위축시키는 상실임과 동시에 영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된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는 승천이기도 합니다. 타냐(Tanya, Iggeret HaKodesh 27)는 이 이해를 더욱 끌어 올리며, 의인의 별세가 번제물을 태우는 것과 비교될 만한 속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죽음 이후에 이 물리적 세상을 향한 그들의 영적 영향력이 오히려 증가한다고 기록합니다. 육체라는 한계에서 벗어남으로써, 짜딕(tzaddik)의 존재는 더욱 널리 퍼지게 되며, 계속해서 회개를 독려하고 신성한 자비를 이 땅에 끌어옵니다.

유사한 분별력의 흐름은 갱신서에서도 나타나는데, 여기서 의인의 죽음은 단순히 비극적인 것이 아니라 변혁적인 것으로 묘사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 여기서 의인의 죽음은 변창과 갱신의 조건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의의 완성을 이루신 여호슈아께서 돌아가실때에 성전에서 일어난 성소 휘장의 찢어짐과 땅의 진동(마 27:51)은, 의인의 떠나가심이 하늘들의 하늘과 온 땅 모두에 거대한 물리적-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현인들이 전수한 몇몇의 랍비들의 가르침과 한 맥락에서 드러난 범 우주적 반응입니다.

종합해 볼 때, 이 기록들은 동일한 이상을 제시합니다. 의인의 죽음은 고립된 한 사건이 아니라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 내에서 작용하는 지속되어 가는 역동적인 힘입니다. 그것은 잠재하신 회개의 영을 깨우고, 한 사람과 공동체, 모두에게 내려질 심판을 달콤하게 하며, 신성한 자비-은총을 회복하고, 의인이 그 영과 함께 했던 육신의 옷을 벗고 난 뒤, 곧 삶의 경계를 넘어서도 세상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힘입니다. 토라에 나란히 놓여진 기록들— 미리암과 붉은 암송아지, 아론과 돌판, 나답과 아비후와 욘 키퍼르—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며, 속죄가 의식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의로움을 체현한 이들의 삶과 죽음을 통해 이루어짐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신성한 방식으로 의인들은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들로 지속되며, 그들의 떠남을 통해 죄의 부정함은 씻겨 나가고, 심판은 부드러워지며, 영원한 언약은 갱신됩니다.

Shalom.

“내가 토라(모세오경; 율법)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토라(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 5:17-20)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여호와]엘로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 5:43-48)

너희가 들었으나- 사람들이[지어낸] 말을 들었으나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 19:18).

“어떤 사람이 아도니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호슈아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 가려면 계명을 지켜야하느니라.” (마.19:16-17)